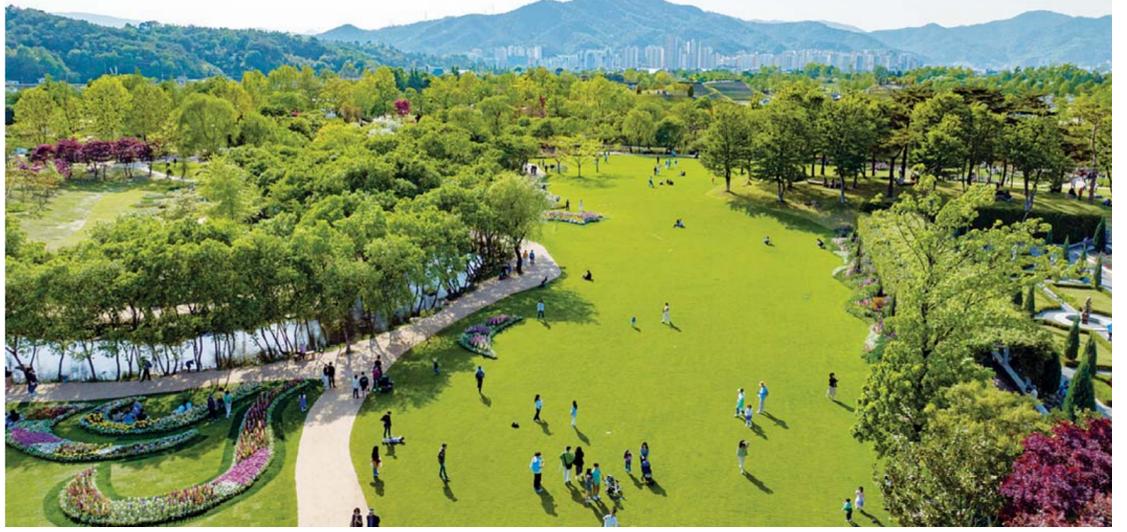


# “연둣빛 피어나는 순천만정원에서 ‘심·여유’ 만끽하세요”

28-29일 개울길 광장 일원서  
가든명 개최...뜨개·글 콘셉트  
참가비 일부 순천상품권 환급  
체류형 소비·상권 활성화 도모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자연을 배경으로 신개념  
휴식 프로그램인 '가든명' 행사를 오는 28-29일 이틀간 진  
행한다. 사진은 순천만국가정원 개울길 광장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디지털 과부하 시대에 지친 현대인  
들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의 자연을 배경으로  
신개념 감각형 휴식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국  
산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동안 국가정원 내 개울길 광장 일원에서 물  
소리가 흐르고 연둣빛이 피어나는 봄 정원을 무  
대로 능동적인 쉼을 즐기는 '가든명' 행사를 개

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존의 수  
동적인 '명때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원  
속에서 손끝을 바쁘게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비  
워내는 차별화된 힐링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  
다.  
행사는 이틀동안 각각 '뜨개'와 '글'이라는 다  
른 콘셉트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첫째날인 28일에는 100명의 참가자가 자연 속  
에서 한데 모여 즐기는 '뜨개명' 프로그램이 펼  
쳐진다.

참가자들은 정원 나무에 임하는 '나무웃 만들  
기' 공동 뜨개 활동을 시작으로, 서랍 속 잠자고  
있는 뜨개실을 교환하는 '실은 말이야', 초보자  
를 위한 맞춤형 교실 '실없는 사람들', 자신의 작  
품을 전시하는 '자랑하실'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복잡한 마음을 털어낸다.  
이어 둘째날인 29일에는 책을 읽고 좋은 문장  
을 직접 필사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는 '글명' 프  
로그램이 이어진다.  
순천 지역 독립책방들이 연합해 큐레이션 서  
가를 선보이는 '책방맛간'을 비롯해, 자신의 책

을 타인과 교환하는 '환승책방', 마음에 드는 글  
귀를 정성껏 적어 내려가는 '문장필사'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참가자들이 수집한 문장들은 '100개의  
문장숲'이라는 이색적인 전시로 이어져 정원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  
다.  
아울러 시는 이번 행사 참가자들에게 참가비  
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정책  
을 도입해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반환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카페, 숙박시

설 소비로 직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순한 관  
람을 넘어선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키고 지역 소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도울 예정이  
다.  
순천시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 지친 시민들  
에게 정원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4월 초 스페이스허브에서 열리는 '정  
원 봄꽃 피크닉'과 네덜란드 정원의 '국가정원  
튤립 페스티벌' 등 풍성한 봄맞이 축제가 연이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 보성군, 농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가공 창업 활성화

'식품제조형 공유주방' 사용자 모집  
31일까지 청년농업인 가점 5점 부여

보성군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  
터 내 '식품제조형 공유주방' 사용자를 모집한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  
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사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종 선정은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  
업성과 기술력, 전문성 등 항목별 평가에서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선발된다.  
특히 18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는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가점 5점이 부여돼 지  
역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농업경  
영체 등록 확인서, 필수 가공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구비해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4월10일 개별 통보 및 군 뉴  
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유주방은 해썹(HACCP) 인증까지 모두  
마쳐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가공품 생산 거점으  
로 자리매김했다.  
연면적 477.1㎡ 규모로 조성된 보성군 농산  
물종합가공센터는 전처리실, 습식·건식·가공  
실, 아이스크림가공실 등 총 68종 92대의 첨단  
장비를 완비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지역 농산  
물을 활용한 참신한 가공 창업이 활성화되고 농  
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지난해 개최된 상반기 농식품제조개발실무교육 농차행 실습에서 참가자들이 빵을 만들고 있다. (보성군 제공)

##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리구제 간담회

대상자 38명 거취 확정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와 관련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등 권익 보호  
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어민복지회관에  
서 주한필리핀대사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  
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

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열고 대상자 38명  
의 최종 거취를 확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출국한 인원 등을 제외한  
25명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 주도하에 자율적인  
의사를 명확히 재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심층 면담 결과 15명은 신속한 출국을, 10명은  
근무지 변경을 통한 계속 근무를 희망했다.  
군은 출국 희망자에게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잔류 인원에게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  
을 지원할 방침이며, 오는 28일 고용주 242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도 실시한다.  
앞서 군은 지난 12일 관내 112개 사업장 대상  
전수 조사를 마쳤으며, 2차 정밀 조사를 통해 부  
당 처우 적발 시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  
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력  
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논란  
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총력을 기울이  
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화순 어울림광장 '청년 문화놀이터' 탈바꿈

내달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은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을 청년과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다채로  
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자발적 참여 기반을 다지기 위  
한 '청춘신작로 세계질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군 청춘센터 '청춘드러' 및  
청년성장 지원사업인 '청춘오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계절별 특색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으  
로 알차게 꾸려진다.  
우선 봄에는 '청춘 피크닉 데이'를 열고 피자

만들기 등 윈데이 클래스와 돛자리 피크닉존을  
마련해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한다.  
이어 여름철 물놀이 '워터풀' 행사, 가을 지역  
예술가 문화 공연, 겨울 트리 포토존 등 세계질



화순 청춘신작로에서 진행된 버스킹에서 참가자들이 무대를 즐기고 있다. (화순군 제공)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든든한 문화 마  
중물로 발전시킬 구상이다. 앞서 군은 해당 광장  
에서 최근 2년간 버스킹을 운영해 전국 151팀 709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어울림광장을 진정한 문화  
놀이터로 활성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장흥군-위기브, 고향사랑기부 10억 달성 '맞손'

민간 플랫폼 활용 홍보 마케팅 도입

장흥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올해 모금 목표액 10억원 달성에 박차를 가한  
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기부 창구 외에 민간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참  
여 경로를 마련하고자, 최근 공감만세 '위기브  
(WeGive)'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돌입했다.

위기브는 스토리텔링형 모금 방식과 온라인  
홍보 콘텐츠에 특화된 전문 플랫폼이다.  
군은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가치와 맞춤형  
기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청년과 출향

향우 등 여러 계층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확산형 홍보를 전개해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를 획기  
적으로 높이고, 안정적인 기부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 구상이다.  
확보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청소년 육  
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방면의 기금 사업  
에 투입돼 지역 상생 발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부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혀겠다"  
며 "앞으로도 기관 간 상호 기부와 향우 대상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부  
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 장성군, 황룡강힐링센터에 '작은 도서관' 조성

장성군은 19일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작  
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황룡  
강힐링센터(사진) 1층에 독서와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부터 이어온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전국 각지에 양질의 독서 환경을 구축하는 대표  
적인 공익 프로젝트다.

새롭게 도서관이 들어설 힐링센터는 사계절  
내내 계절꽃이 피어나는 황룡강 꽃길과 인접해  
있으며, 가족 단위 나들이 명소인 '황미랜드  
테마공원'과도 가까워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  
췄다.

군은 이 같은 친환경적인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 '북크  
닉(북+피크닉)' 등 다채로운 생태 연계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올해 안으로 개관을 마무리하는  
/장성=김문태 기자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작은 도서관이 인근 주  
민과 방문객들에게 쉽고 자유를 선사하는 지역  
의 든든한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길 기  
대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담양군 '2026 공중케이블 정비 공모' 선정

20억 투입 담양시장·대전면 등 정비

도시 미관 개선·보행 안전 확대 기대

담양군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공중케  
이블 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약 20억원  
규모의 정비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번 공모에서 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군이 최  
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전국 정비 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그중  
20억원을 배정받았다.  
정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한국전력과 통신

사업자가 전액 직접 부담해 집행하며, 담양군은  
구역 설정 등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총괄한다.  
주요 정비 구역은 담양읍 담양시장 일원과 대  
전면 도시재생사업 지구다.

군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전선을 정비해 도심  
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  
써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  
고히 다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주거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행  
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